

식민초기 조선의 교육잡지를 통해 본 학교위생 및 체육교육 연구: 1910~1931년의 만주사변 전까지를 중심으로*

황의룡** · 김태영***

1. 머리말
2. 일제의 위생교육과 조선 인식
3. 학교위생 관련법과 위생교육(1910~1919년)
4. 보통학교학교의(醫)규칙과 위생교육(1919~1931년)
5. 맺음말

1. 머리말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후 식민지배에 대한 정당화 논리로 자신들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조선에 서양의학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식민지 조선인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朝鮮總督府, 1912: 3; 박윤재, 2002: 152). 일본 제국주의 자들은 그동안 자국 내에서 펼쳐온 근대적 위생(Modern Hygiene)¹⁾ 과 의학

*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2013년도 학술연구비조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외래강사

*** 교신저자: 김태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130-791

이메일: ktyoung66@hanmail.net

1) 근대의 위생이란 용어를 살펴보면, 우선 개항 이후 조선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위생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라이시 호세이(白石保成)는 “위생상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을 보지(保持)하고, 또 장수를 도모하는데 있는데, 하나는 우리들 건강을 해칠 만한 여러 종류의 사물을 제거하여 그 작용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들 신체의 저항력을 강장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白石保成, 1918: 1-2). 한편 박윤재는 “구한말 위생은 이미 발생한

적 기술의 성과를 토대로 식민지 통치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식민지 위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미개한 조선인들을 개화시키는 데는 서구적 의학을 바탕으로 한 근대위생 계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공유하고 있었다.²⁾ 즉 언론총독부로부터 불렀던 조선총독부는 신문과 학교교육을 통해 의학지식을 전달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조선인을 충성스런 식민지 백성으로 동화시키려는 수단으로 근대 위생사상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정혜경 · 김혜숙, 2005: 102; 도면회, 2006: 52)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계몽논리는 식민 지배의 정당화로 자리 잡아 갔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제가 이러한 논리에 의해 학교에서 위생에 대한 계몽교육을 실천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식민지 조선인의 위생사상 변화에 그대로 작동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그것은 일제가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계몽한 근대의학적 위생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나를 확인하는 작업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주도하고 이를 대변하던 사회지식층이 전개한 학교위생계몽과 관련된 논설 경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조선인의 위생사상 계몽에 대한 일제의 계몽 작업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조선인과 학교현장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일제가 벌인 근대적 의료사상의 계몽과 관련하여 학교위생학³⁾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생과 체육의 병존관계를 조

병을 치료하는 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든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으로 소독이나 방역, 청결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의미로 도입되어 생명보호 및 건강한 신체형성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특히 위생은 경우에 따라 의학교육을 제외한 다른 의학 관련 업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국가의 부강은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의 건강을 통해 이루어지며, 위생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박윤재, 2002: 11-13)고 하였다.

- 2) 일본 식민정책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는 “(……)식민지 경영의 방법이 반드시 위생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또 의학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그만큼 위생이나 의학의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의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矢内原忠雄, 1943: 369; 이종찬, 2004: 237-238)할 정도로 일제의 식민지 경영에서 위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 3) 일본의 학교위생학의 탄생은 ‘학교위생의 창시자’라 불리는 미시마 미치요시(三島通良)에 의해 성립되었다. 그는 1891년 문부성 학교위생관리 촉탁으로 임명되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는 『学校衛生学(학교위생학)』이란 책에서 “학교위생학은 실로 교육의 기본으로 국

명한 연구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김진균 · 정근식 · 강이수, 1996: 106-140; 조형근, 1997a: 210-246; 1997b: 170-221; 이승원, 2003: 17-125; 손준중, 2004: 195-220). 이들 연구들에서 위생사상 고취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가 국가의 일부라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서구의 근대적 시선을 통해 조선인의 위생적 불결함을 비판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일제의 식민권력이 자신들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위생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신체를 통제하고 훈련시켰는지 훈육적 관점을 밝히는데 집중되어 있다(박운재, 2010: 54).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교육에서 아동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전개한 근대 서구의학의 위생계몽 내용이나 방법, 그 실태 등에 주목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한 1910년을 전후하여 일제 통치자들이 자국 내에서 거둔 근대위생교육,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위생교육의 성과를 먼저 검토한다. 그리고 일제의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그들이 조선인들의 위생사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식민초기인 1910년부터 1919년 3·1운동 전까지 조선총독부의 관변단체로 결성된 조선교육회 등이 발행한 교육잡지⁴⁾의 위생관련 논설이나 글에

민 강약의 원인에 연결된다. 그 보급의 선악에 따라 국가와 국력의 강약에 영향을 준다. 학교위생을 기초로 조직된 교육,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완전한 인간 교육이다.” 학교위생학은 “학교의 교지(校地), 교사건축과 배치, 채광 · 환기법, 책걸상 구조, 생도의 질병 및 학교의 임무(질병검사)로 나뉘고, 여기에 체조 및 유희, 수업과 휴식”이 포함되고, 이러한 위생교육 속에서 체육이 중요하다(三島通良, 1893: 19)고 주장하였다. 그 후 후루세 안순(古瀨安俊)은 『學校衛生(학교위생)』에서 “학교위생은 아동 · 학생 및 교육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건실한 발달을 기초로 건전한 제2의 국민을 조성하는데 있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실로 학교위생은 아동 · 생도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정신과 신체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학교위생의 내용은 설비위생, 교수위생, 운동위생, 영양보전, 신체검사, 신체허약자의 양호, 정신허약자의 양호,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이 포함된다(古瀨安俊, 1919: 1-3). 이러한 위생체계는 구한말 조선에도 전해져 체육을 다룬 다수의 글들 중에 위생학이나 위생론에 체육을 포함시켜 파악(정준영, 2003: 255)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이 연구에서 주 자료로 이용한 교육잡지는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결성된 관변단체가 발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위생관련 논설들은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이나 교육방법,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총독부 시책을 대변하는 논조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다. 실제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게재한 지식층 인사들도 총독부의 보호 아래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선 전체의 의견이라

는 어떠한 위생이론 및 지식적 내용을 게재하고 계몽하였나, 그 목적과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표면적으로나마 정치사회적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전까지 전개한 학교위생 계몽과 관련한 논설을 통해 학교위생 및 그 수단으로 전개한 체육교육⁵⁾의 강화, 그것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었나, 그 정책적 목적과 의도를 보여줄 것이다.

이 연구의 범위를 1910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 전까지로 설정한 이유는 일제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하고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개편하고 인력동원과 물자의 수탈 체제 등을 구축, 이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선사회와 조선인의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사회정책이나 교육제도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이종찬, 1999: 139; 권태역, 2007: 7). 그리고 1931년 총독으로 재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만주사변을 계기로 조선사회의 통제를 확대, 강화한 후 시정방침을 비상시국에 대처하도록 “황국신민화운동”과 “농촌진흥운동” 등을 추진, 파쇼 지배체제를 확립하는데 힘을 쏟아 이전 시기와는 차별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1931년의 만주사변은 이후 15년 전쟁의 계기가 되었고, 일본과 조선 전체가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모든 정치사회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해석할 때에는 총독부의 정치적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 5) 당대 위생과 체육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용어사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90년대부터 일본에서 체육이란 개념은 완전한 근대위생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으로 취급되었다(日本衛生協會, 1910: 145). 특히 미시마 미치요시(三島通良, 1902: 248)의 『体育法と体操と(체육법과 체조란)』의 위생이론을 이어 받은 스즈키 산파크(鈴木三伯)는 “위생과 체육은 최근 도처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특히 소위위생(所衛謂生)이란 인간의 생명이 생긴 이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와 관련한 여러 설비를 만들 때 완전하게 하고,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장애와 질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위생’을 포괄한 ‘체육’에 필요한 조건이 완전하게 구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개체는 건강한 것이다. 따라서 ‘체육’이란 소위 ‘위생’에 관한 모든 의학적 지식 하에서 실행돼야 한다”(鈴木三伯, 1924: 8-9)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위생을 상위개념으로 체육을 하위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당시 모든 “위생적 환경”을 정비한 후에 신체적 발육과 발달을 도모하는 하위개념으로 체육(체조)를 장려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체제가 비상시국으로 진입하는 중대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여기까지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 자료로 이용한 “교육잡지”가 1945년까지 발행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위생관련 논설도 매우 많아 여기서는 식민초기부터 1931년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⁶⁾

이 연구는 주로 재조선 일본인으로 결성된 조선교육회⁷⁾가 1915년부터 발행한 『조선교육연구회잡지(朝鮮教育研究會雜誌)』와 1921년부터 명칭을 바꿔 발행한 『조선교육(朝鮮教育)』, 그리고 1925년부터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으로 바꿔 발행한 교육잡지 및 조선초등교육연구회⁸⁾가 1928년부터 발행한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에 실린 위생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잡지들을 발간한 교육단체가 총독부 학무국 내에 본회를 두고 각 지역의 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한 관변교육단체였고, 주로 총독부의 교육시책을 대변하는 논조나 논설을 통해 학교 내에서의 교육 방법, 교육논조, 교육시책 등을 공유하는 글들을 많이 게재했기 때문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위생사상 고취 정책에 근거한 ‘학교위생교육’의 내용과 의도 등을 알아보는데 알맞은 사료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제와 관련된

6)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의 군국주의적 성격이 크게 강화되고, 조선인에 대한 “황국신민화운동”을 통한 내선일체라는 사회교화 논리를 내세워 총력전 체제로 진입하는 식민후기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7) 조선교육회는 1902년에 일본인으로 결성된 경성교육회의 후신으로 1910년에 조선교육회, 1915년에 조선교육연구회로 개편되었다. 이회는 『朝鮮教育會雜誌』(1913~1915), 『朝鮮教育研究會雜誌』(1915~1919년), 『朝鮮教育』(1921~1923), 『朝鮮教育時報』(1923~1925)를 발행하다가 『文教の朝鮮』(1925~1945)을 발간하였다. 주로 총독부관료, 경성제국대학 교수, 교원, 의사, 군인들의 논설이나 평론들이 게재되었다. 이 잡지에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에 따라 교육학설, 교육적 연구조사, 교육관련 법령, 교육자에 대한 시국강습회, 회원 간의 의견 등의 정보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조선교육회의 역할은 총독부의 관변단체로서 식민 당국의 교육 관련 시책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계몽하는 데 주안점을 둔 단체였다(김성학, 2003: 281-284; 최혜주, 2011: 7-13).

8) 『朝鮮の教育研究』는 조선초등교육연구회가 1928년 4월부터 1940년까지 발행하다가 1941년부터는 『國民教育』으로 명칭을 바꾸어 발간하였다. 주로 조선의 초등교육과 관련된 교사들과 경성사범대학 교수, 총독부 관료, 의사, 교사들이 초등교육방법 개선과 연구조사, 교육평론 등의 글을 게재하였다(赤木萬二郎, 1928: 1-4). 이 잡지는 경성사범학교 출신 교사들과 부속학교의 교원들로 구성된 초등교육단체가 발행하였는데, 총독부의 교육시책을 전달하거나 계몽하는데 주력한 교원단체였다.

국내외 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2. 일제의 위생교육과 조선 인식

1) 일제의 위생교육 성과

근대 일본사회의 위생정책은 콜레라와 페스트 등의 급성 감염증의 만연
을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시작되었다(見市雅俊, 1994: 98; 藤野豊, 2003: 20).
1879년 그들은 때마침 찾아온 콜레라의 영향으로 세 방향의 공중위생정책
을 전개한다. ① 1883년 생활 속에서 청결을 우선시하는 공중위생 사상을 일
반인에게까지 깊게 침투시키려는 목적으로 대일본사립위생회(大日本私立衛生
會)를 결성하고 활동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②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포함한 관료들에 의해 환경위생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③ 다카기 가
네히코(高木兼寛)와 같은 군진 의학자들에 의한 군진위생을 중심으로 전개되
었다(田波幸男, 1967: 106; 見市雅俊, 1994: 90-100; 이종찬, 2004: 208-237).
이러한 시책을 통해 일본의 근대적 위생은 뿌리내리게 된다.

1890년대 제국주의적 팽창이라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군국주의 정치를 강
화해 온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을 일으키며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다. 그 이유로 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는, 이 전쟁에서 일본 군인이 부상당
하거나 사망한 자는 1만 5, 601명이었고, 이 중 1만 2, 813명(82%)이 콜레라와
말라리아와 같은 급성전염병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병에 걸려 전쟁터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병사들의 질병은 대부분 동사였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大江志乃夫, 1981: 91-9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본정부는 전쟁에 참여하
는 병사가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의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소학교 교육이 많이 보
급되어 있어 여기서 추진한 국민적 위생교육이 진보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기도 하였다(歷史教育者協議會, 2007: 42),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일본 제국은 특히 학교위생을 더욱 철저히 교육할 것을 강조함과 함께 학생들의 완전한 위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발육발달과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조교육⁹⁾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문부성과 육군성은 소학교 교육 과목으로 위생적 견지에 입각한 체조교육을 더욱 강력히 시행하도록 지시한다(木下秀明, 1982: 202). 1897년 3월 문부성훈령 제3호로 전국의 아동·학생의 체력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歷史教育者協議會, 2007: 42)하였고, 1898년 2월에는 각 학교에 학교의(醫)를 두도록 결정(內閣官報局, 明治31年 2月 26日; 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a: 742)하면서 학교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전임의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고, 학생들의 정기적인 체력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¹⁰⁾

이러한 일제의 근대의학을 토대로 한 학교위생교육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하는데, 1895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병사의 80%가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한 사망이었지만, 1904년에 일어난 러일전쟁에서는 전체 사망자 68,798명 중에 48,358명이 전투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질병과 전염병 등으로 사망한 병사가 3분의 1로 줄었던 결과를 가져왔다(大江志乃夫, 1981: 94-95; 이종찬, 2004: 231-233). Louis Livingston Seaman(Seaman, 1906: 1-2)과 이종찬(이종찬, 2004: 232) 등에 의하면 그 이유가 병원균의 정복에 의한

9) 일본에서 체조는 신체를 단련하는 방법으로 19세기 도입되었다. 군사적 목적에서 1886년 소학교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890년 소학교 개정령에 의해 임의교과가 되었다가 1900년대 다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미시마(三島通良)에 의하면 “체조는 신체의 성장을 균등하게 하여 건강하게 함과 동시에 규율을 지키는 습관을 배양함이 중요한 취지”라고 하였다(三島通良, 1893: 266). 고지마(小島与一)는 “체조는 생리에 순응하여 발달 방면에 힘을 쏟음과 동시에, 또한 여기에 따라서 저항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小島与一, 1919: 50). 식민지 조선에서는 大正3(1914)년 조선총독부훈령 제27호로 관립학교에 학교체조교수요목이 채택되었다. 체조과 교재는 체조교련과 유희였다(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c: 505; 木下秀明, 1982: 204; 유근직, 1999: 26; 손순중, 2004: 203).

10) 1896년 청일전쟁 후 학교위생교육을 더욱 진보시키기 위해 문부성에 학교위생고문회의를 조직하였다. 고문회의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비롯해 9명으로 구성하고 미시마 미치요시(三島通良)를 위생주사로 참석시켰다.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통해 학교위생제도를 정비하고 완성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歷史教育者協議會, 2007: 127-128).

근대위생을 철저히 실시한 덕분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청일전쟁이 끝나고 재차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미래의 병사인 아동·학생들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학교교육 이용하여 학생들이 집단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생능력을 고취시켜 단체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교육하는 위생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歷史教育者協會, 2007: 43).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근대위생교육과 연계된 체력을 향상시킬 수단으로 서구식 병식체조를 도입하여 학생들을 훈련시킴으로써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木下秀明, 1982: 203). 이러한 일제의 위생교육을 통한 두 번의 전쟁 결과를 두고, 당시 미국의 관료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을 “환경위생의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였고(이종찬, 2004: 218), 이는 식민초기 일본과 조선의 “동화정책”을 내세우며 지배체제를 강화한 조선에서의 위생계몽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2)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위생인식과 계몽 내용

일제는 자신들의 근대적 위생환경 달성을 경험하고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조선인들의 위생사상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1915년부터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서 위생행정을 총괄하였던 시라이시 호세이(白石保成)는 『조선위생요의(朝鮮衛生要義)』에서 조선의 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조를 보인다.

조선이 생긴 이래 위생사상이 빈곤하여 가끔 질병에 걸리면 의료에 의한 치료를 좋아하지 않고, 우선 무녀나 점술가 등의 말을 듣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학식과 기능을 가진 의사는 매우 부족하다. (……) 또 사회적 위생시설이 매우 부족해 식수나 음료수와 같은 것도 지극히 불량하여 항상 소화기 계통의 전염병이 유행하는 원인이 되고, 폐(디스토마)와 같은 병이 각지에 만연하여 거의 저지

할 수 없다. 明治43(1910)년 일한합병에 따른 새로운 정치 시행에 따라 이 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경성에 총독부의원 외에 각 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여 넓게 구료를 개시하였다. (……) 구 한국정부는 광무4(1900)년에 의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지만 거의 형식에 그쳐 민간인에 전유된 실적이 없다(白石保成, 1918: 38-39).

『조선교육연구회잡지(朝鮮教育研究會雜誌)』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실려 있다. 당시 대구공립보통학교 훈도였던 김지연(金志淵)의 글을 보면, 「개량해야 할 조선의 풍속(改良すべき朝鮮の風俗)」에서 “위생항목”으로 “① 식물의 섭취방법이 불결하다. ② 생물을 많이 이용한다. ③ 자극적인 것을 많이 이용한다. ④ 신체가 불결하다. 시골사람은 목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⑤ 우물가에서 불결한 것을 빠는 사람이 많다. ⑥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 “개량책”으로 “통속 강화회를 열어 유해한 점을 지도해야 할 것”(金志淵, 1919, 56)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조에서 보듯 총독부나 대부분의 사회고위층 인사들은 조선의 근대의료정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위생사상은 매우 불결하고 미신을 믿는 풍속이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과 식수 등을 날 것으로 먹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총독부가 나서서 병원을 설립하여 구료활동을 전개하여 왔다는 총독부의 치적만을 내세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제는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미개한 조선인을 식민지민으로 철저히 개화시키고자 교육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려 하였다(김동노, 2004: 32). 식민 초기 조선총독부 정책에 깊이 관여하며 수원자혜의원 원장이었던 다나카 도쿠지로(田中徳治郎)는 「조선에 있어서 초등 교육자의 위생상 요령(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者の衛生上の心得)」에서 “학교위생교육은 미개한 조선인들의 위생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우선 어린 학생들의 위생 고취에 노력하였다”(田中徳治郎, 1916: 10)는 치적과 더불어 학생들의 위생교육을 위해 교육자가 지녀야 할 위생 소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인은 익숙하지 않은 지방(조선)으로 이주하여 모든 기상 요소와 토양의 지리학적 성질 및 상태에 따른 유행성 열병의 출몰 등 위생상 모든 영향을 몸으로 받는다. …(중략)… 조선에서 태어나 이미 적응했거나 막 적응하기 시작한 아동 등 모두 동일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다. 체육교육상 이러한 배경을 참작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체격에 있어서 중등교육 정도의 생도는 정시 체격검사 합격자이고, 부정기적 입학자도 체격이 우량한 생도로 한정되어 있지만 초등교육의 아동은 정신병이나 전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에 체격을 불문하고 수시로 입학시키기 때문에 교육자는 체격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여 체육을 교수해야 한다. 셋째, 전일 학교의(醫)와 공의 및 개업의에 관한 사항이다. 학교위생상 감독은 경성의 경우와 같이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외에는 모두 공의로써 한정된 지역에서 개업한 의사에게 진찰받는 것 말고는 전부 교육자에게 달려있다. 때로는 급한 환자나 부상을 당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급법을 잘 알아둬야 한다. 조선의 교육자는 일본과는 다르게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방의 위생 및 가정위생에서 내지의 위생은 더욱 진보,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물며 신개척지인 조선에서의 상황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田中徳治郎, 1916: 11-12).

또한 내과의사이며 세균학자로 알려진 시카 키요시(志賀潔)¹¹⁾는 「주로 내지인 아동의 보건에 관해(主として内地人兒童の保健に就て)」에서 “조선은 일본보다 건조하고, 조석의 온도차가 심하고, 더위와 추위도 격심하여 감기에 걸리고 쉽다. 또는 목이 자주 아프다. 이것이 폐병으로 이어지고 폐렴으로 진행되기 쉽다. 특히 조선과 내지의 차이는 천연두와 성홍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주 아동이 빠른 시간 내에 기후나 토양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미리 의사의 진단 하에 적당한 체육이 필요하다”(志賀潔, 1922: 92-97)는 환경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내지인의 위생적 적응을 위해 체육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1) 시카 키요시(志賀潔)는 1892년에 이질균을 발견하였다. 1929-1931년에 경성제국대학 총장을 지냈고, 조선총독의 의학수석고문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전문의사들은 재조선 일본인 자녀들이 기상조건과 토양 등 주거환경이 다른 곳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앞장서서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상 체육(체조)¹²⁾를 교수할 때도 아동의 체격을 직시해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조선에는 의사가 매우 부족¹³⁾하므로 학교의나 간호부¹⁴⁾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근대의학에 근거한 구급법을 숙지하고, 유행성 질병을 일으키는 위생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민초기 조선총독부의 학교위생 계몽에는 아마도 중요한 이유가 내재된 듯하다. 다나카(田中)와 이종찬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조선은 식민지로 지배해야 하는 일본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위생적 소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위생적이고 청결해야만 재조선 일본인들이 건강하게 거주, 또는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인의 위생 및 청결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田中徳治郎, 1916: 12; 이종찬, 2004: 230)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보건위생과 체육교육¹⁵⁾을 중요시하는 논조가 활발하게 제

12) 당시는 일반적으로 체조를 체육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체조는 하나의 운동형식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8세기부터였다. 특히 독일체조와 스웨덴체조, 덴마크체조가 세계 3대 체조로 손꼽혔다. 구한말 체조는 다른 종목과 달리 국가의 교육시책으로 다루어졌다. 1895년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학교설치령이 시행되면서 체조가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체조는 군대식 체조였는데, 근대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체육이 교과목이 되고 여러 가지 체육교육 중의 하나로 체조가 되었다(이태신, 2000: 1178).

13) 1914년 서양의학을 습득한 의사의 수는 641명이었다(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4: 366). 1924년은 약 1,301명이었다(鈴木公重, 1924: 4).

14) 일본에서 학교 간호부를 처음으로 고용한 것은 메이지 37(1904)년 후쿠오카여자사범학교에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조선에서 학교간호부가 고용된 것은 1921년 부산시 소학교에 1명씩 고용한 것이 처음이다(大槻戈也, 1930: 42; 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a: 746).

15) 경성중로공립심상고등소학교 훈도인 우에스기 토시오(上杉敏夫)는 “체육의 기초는 생리해부와 물리, 심리, 위생학 등의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上杉敏夫, 191: 29)고 주장하였다. 공주공립심상고등소학교 훈도인 마바(馬場豊二)는 「體育獎勵法(체육장려법)」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토대로 체육교육상의 참고로 삼고, 호흡기능과 청소, 피부기능, 영양기능, 운동기능자세, 신경계 기능, 감각기능 등에 대해 피력하였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생환자를 위해 응급처치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구급실과 침실, 구급약품, 붕대 등을 준비하고 교사는 구급치료를 학교의에게 배워 두어야 한다”(馬場豊二, 1917: 30-32)

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민 초기 조선에서는 일본인의 이주가 매우 활발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서의 위생교육 내용은 교육자가 일본인 자녀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주로 해 실행되었고, 미래의 학교위생을 확립하는 포괄적 견지를 고려하여 체육교육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것을 주장, 계몽한 듯 보인다.

3. 학교위생 관련법과 위생교육(1910~1919년)

1) 학교위생 관련법 규정과 그 실태

식민초기 일제의 조선 지배의 정당화 논리는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을 일제의 동일한 국민으로 동화시키는 민족동화가 기본 목적이었다(김동노, 2006: 45-46). 김승태(김승태, 2010: 250)는 식민초기 일제의 “동화정책”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한 이후 계속해서 강조한 지배의 정당화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일제는 1913년에 들어와 학교위생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 법제는 일본 내에서 명치(明治)30(1897)년 시행한 문부성훈령 學校醫職務規定(학교의직무규정) 및 명치(明治)33(1900)년 문부성훈령 學校生徒身體檢査規定(학교생도신체검사규정)에 준거하여 훈령하고 있다(平井次郎, 1899: 166-172; 藤井利譽, 1910: 187-188; 白石保成, 1918: 38; 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c: 480)¹⁶⁾. 조선총독부는 1913년 4월 26일에 도부군(道府郡)에 속한 관립학교를 대상으로 총독부훈령 제24호 “관공립학교생도신체검사규정”¹⁷⁾을 공포(朝鮮總督府官報, 1913; 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c: 476)하고

고 역설하였다.

16) 일본은 1898(明治31)년에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의규칙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1894년 東京市 麴町区(고지마치구)에서는 학교 축탁의란 이름으로 3명의 의사를 두었고, 예산은 구의회가 계상하였다. 이 법을 공포하고 20년이 지난 1918년에 일본에 학교의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80%가 넘었다(歴史教育者協議會, 2007: 128)고 한다.

17) 일본에서는 明治21(1888)년 12월 문부성이 소학교에 “학생생도체력검사표식”을 훈령한 것이 처음이다. 明治24년 4월 문부성령 제2호로 “소학교설비준칙”에 학교위생과 관련된 2~3

학교위생 업무를 공의¹⁸⁾가 관장하도록 법제화하기에 이른다(朝鮮總督府學務局, 1926: 197). 이어서 1917년에 들어와 조선총독부 내에 학교위생업무 촉탁 제도를 설치하고 전국의 학교위생 사무와 관련된 조사와 감독권을 부여(白石保成, 1918: 38; 朝鮮總督府學務局, 1926: 197)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학교위생 관련 업무를 총독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지배 체제를 구축해 가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훈령에는 매년 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 학생들의 신체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서 “관공립학교장은 학교의에게 생도의 신체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단 학교의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 검사의를 촉탁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체검사로는 신장과 몸무게, 흉위, 척추, 체격, 시력, 눈병, 청력, 귓병, 치아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항목이 있으며, 영양불량, 빈혈, 선병(피부병), 각기, 폐결핵, 두통, 신경쇠약증, 비질, 인후염, 전염성 피부병, 기타 만성질환은 질병으로 분류하였다. 이 검사결과를 가정에 통보하고 교사와 학부형은 아동들의 위생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학교설비와 책걸상 등을 고려하여 교수해야 한다”(馬場豊二, 1917: 29-32; 大槻弑也, 1930: 42-44; 李基綾, 1930: 91-104)고 세분화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조항으로 제8조에 “당분간 조선인 여생도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文部省教育史編纂會c, 1939: 478)는 규정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사에끼 나오지(佐伯直治)에 의하면 “신체검사 방법이란 것이 아직 통일되지도 않고 또 불확실하다. 1시간 내에 몇 십 명의 아동을 검사하고 끝낸다. 체중은 옷을 입은 채로 측정

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a: 742). 明治30년 3월 문부성이 각 부(府)에 훈령 제3호로 “學生生徒身體檢査規定”을 명하고, 매년 두 차례 실시하여 문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 훈령은 6개 항목이고, 신체검사는 의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b: 746-768).

18) 大正2(1913)년 조선총독부령 제103호 공의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공의를 배치하여 경찰의와 같이 일반인에게 의약의 편리함을 주도록 하라. 공의는 ① 전염병 예방, ② 지방병의 조사, ③ 중두 시행, ④ 학교위생, ⑤ 공장위생, ⑥ 예기, 창기, 작부 등의 건강진단, ⑦ 사체 검안, ⑧ 행려병자 및 빈민 환자의 진료, ⑨ 그 외 공중위생 및 의사에 관해 특별히 명령된 사항 등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白石保成, 1918: 58-59).

하거나 전혀 맹목적이고 무책임하게 숫자만을 검사표에 기재할 뿐”(佐伯直治, 1919: 46)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학교위생의 표준이라 할 신체검사 및 문부성이 규정한 1년에 한 번 행하는 신체검사마저도 가장 교육적으로 거행하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白河武夫, 1919: 36)고 부언할 정도로 매년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학생신체검사는 당시의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2) 학교위생교육과 체육교육 계몽활동

1910년 이후 『조선교육연구회잡지(朝鮮教育硏究會雜誌)』에 게재된 학교 위생과 관련한 논설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군국주의적 색채를 띠는 논설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학교교육에서 완전한 위생적 신체를 형성하는 신체활동으로 더욱 주력해야 할 교과는 “서구식 체조”라 제시하고, 이를 철저히 교육할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위생 2, 3개에 관하여(學校衛生の二三に就て)」(田中徳次郎, 1916: 11-14) 「체육장려법(體育奨励法)」(馬場豊二, 1917: 29-49), 「목검장검체조강습회출석복명서(木劍長刀体操講習会出席復命書)」(小島興一, 1917: 31-35), 「소위 신사 체조에 관하여(所謂紳士の体操に就いて)」(弓削幸太郎, 1918: 1-27), 「하기 방학 중의 체육적 시설에 관한 의견(夏期休暇中の体育的施設に関する意見)」(北豊吉, 1918: 1-21), 「조선 각도에 있어서 체조술 장려 및 실시 상황(朝鮮各道に於ける体操術奨励及実施状況)」(各地方委員, 1918: 56-62), 「체조과에 있어서 요령 철저 방안(体操科に於ける要領徹底方案)」(濱田熟, 1918: 37-45), 「국민체육 문제에 대한 우리 태도(國民體育問題に対する余の態度)」(寺尾兵右衛門, 1918: 57-63), 「현재의 학교체육에 대한 의문(現時の學校體育に対する疑問)」(佐伯直治, 1919: 44-46), 「체조과에 있어서 교사의 견식(体操科に於ける教師の見識)」(小島興一, 1919: 50-51), 「학교생도 신체검사에 관하여(學校生徒身體檢査に就て)」(徐光勳, 1919: 52-53), 「단급에 있어서 체조교수에 관해(單級に於ける体操教授に

ついて)』(内藤萬太郎, 1919: 42-46), 「학교체육의 결함과 구제 대책(學校體育の欠陥と救済策と)』(上杉敏夫, 1919: 24-29), 「체육은 철저히 해야 함(體育は徹底的にたるべし)』(錦江, 1919: 33-34), 「소학교 체육 부진의 이유와 소감(小學校體育不振の理由と所感)』(白河武夫, 1919: 33-39), 「학교체육의 소극적 방면(學校體育之消極的方面)』(白濱壽夫, 1919: 17-23) 등이 게재되어 있다. 위 글들의 대부분은 제1차 세계대전¹⁹⁾ 발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교위생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체육(체조)를 독려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시라하마 토시오(白濱壽夫)는 “현재의 말로 학교위생이라 칭하는 것은 체육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위생과 더불어 학생들의 완전한 신체위생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위생으로 엄밀한 신체검사를 통해 나타난 미진한 신체 부위마다 알맞은 체조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 위생을 완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혼란한 시국을 벗어날 수 있다”(白濱壽夫, 1919: 19-23)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소신, 즉 유럽에서 일어난 세계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을 뛰어넘기 위해서 중요한 수단으로 대두된 학교위생 및 체육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계몽은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가 안정을 찾게 되면서 시들어진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1919년 3·1민족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예전과는 다른 식민체제의 정책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기에 이른다.

4. 보통학교학교의(醫)규칙과 위생교육(1919~1931년)

1) “보통학교학교의(醫)규칙”과 그 실태

1919년 3·1민족해방운동은 일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

19) 이 전쟁의 발발에 대해 조선인의 반응은 매우 심각한 민심의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의 신문은 전쟁의 여파로 조선도 전쟁터가 된다거나 조선인도 병역에 징용된다는 풍설이 횡행했던 것을 전하고 있다(『毎日申報』, 1914년 8월 19일; 『朝鮮新聞』, 1914년 10월 1일).

건으로 무단통치 방식으로는 식민지 조선인의 저항만을 불러온다고 판단한 총독부는 3·1운동 후 조선인을 더욱 철저히 동화시키기 위해 ‘일시동인(一視同仁)’이나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식민지 조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자치권을 허용할 것을 다짐하기도 한다(김승태, 2010: 214). 이러한 통치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잡지의 논설이나 논조의 내용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 같다.

1919년 4월에는 식민지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를 대상으로 조선총독부령 제59호로 “보통학교학교의규칙”을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전염병예방 및 소독방법(조선총독부령 제60호)”, “학교청결방법(관립학교에 대한 조선총독부훈령 제11호)”를 더불어 공포(大槪式也, 1930: 42; 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 538-544; 유근직, 2001: 38)하고, 관립학교와 보통학교에 대한 위생교육 훈령을 통일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매년 학교에서 시행해야 할 위생 및 전염병 예방, 소독, 학교의 고용 등의 학교위생관련 정책이 식민지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22년 5월에 들어와 각 도(道)에 근무하는 위생기사에게 도내의 학교위생 사무를 촉탁하여 학교위생을 감독하거나 지도하도록 하는 훈령을 공포하였다(朝鮮總督府學務局, 1926: 197). 동년 12월에는 “학교 여자교원의 출산과 출산 후의 휴양에 관한 규정”, 1925년에는 “학교 간호부 설치에 관한 통달”을 내려 학교위생의 진전을 도모하기도 하였다(朝鮮總督府學務局, 1926: 197).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의 발포와는 달리 당시 공립학교 훈도로 근무하던 시라가와(白河武夫)는 “학교현장 실태는 위생과 체육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신체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거행하고 있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白河武夫, 1919: 36)”고 한탄할 정도로 실제로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던 관·공립 학교에서도 이 법규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선인 학생 대상으로 공포된 “보통학교학교의규칙”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규칙 제1조의 예외 조항에 “공립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분간 학교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文部省教育史編纂會, 1939c: 539)”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인 학교에는 학교의를 고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법의 맹점은 1930년대까지 이어져 조선인 학교에는 학교의가 고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듯하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조선인으로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한 이기룡(李基綾)은 당시 학교의나 위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조를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의 중요한 위생적, 인적 환경으로 학교의와 간호부가 꼭 필요하다. 학교마다 학교의는 실제로 이름만 있을 뿐, 1년에 1회의 신체검사를 해 주는 게 전부다. 어떻게 하든 개선하고 싶다. 학교의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 학교에 와야 하지만, 안 되면 격주에 1회라도 와야 한다. 간호부는 매일 학교에 전속하여 항상 간호위생에 주의하여 불시에 일어나는 아동의 병을 조처하거나 교내를 소독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도 경비관계로 실현되기 어렵다. 학교의나 간호부를 설치한다면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용구나 약품도 구비하여 의료위생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李基綾, 1931: 112-119).

이기룡은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완전한 환경을 정비함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위생 및 건강을 위해 학교의 및 간호부의 고용은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재조선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고 조선인 학교에는 이들은 물론 보건을 담당할 위생실마저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정이 빈곤한 현상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적하고 있어 당시 학교위생에 관련된 설비 실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²⁰⁾ 도얄(Doyal)이나 와키무라 코헤이(脇村孝平)의 말을 빌리면, “당초 의학이나 공중위생은 19세기부터 식민지 통치자들

20) 통감부시기인 1907년에 한성위생회 규칙을 고시하였고, 1908년 제예규칙과 위생조합 등의 규칙을 고시하는 등, 식민지 초기 일본인들은 조선인의 위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1910년대 조선에서 실시한 거의 모든 위생정책은 일본인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조선인에게 청결을 강조함으로써 재조선 일본인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정혜경 · 김혜숙, 2005: 69-70; 김백영, 2009: 443-444)에서 재인용.

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리고 식민지배에서 근대적 의료체계의 도입이 제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로 의료체계의 일차적 목적이 식민 지배자들의 건강유지에 주어지기 때문이고, 식민지인들에 대한 근대의료의 포괄적 내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력 확보 및 식민지배의 대외적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졌다”(의료연구회, 1989: 158; 脇村孝平, 1997: 35)는 주장을 식민지 조선에도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는 조선총독부가 1919년에 훈령으로 학교위생법을 제정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교에 학교의 및 간호부, 위생실 설치와 같은 위생교육에 꼭 필요한 환경은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때까지도 조선인은 위생관념이 희박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조선의 각 지역에 공의를 배치하고 경찰의를 보내 식민지민에게 의약의 편리함과 공동우물 굴착을 장려하였고, 전염병 및 수역에 방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등, 조선인의 근대위생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선전(白石保成, 1918: 37-39; 김백영, 2009: 449)하는 데만 열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는 1913년에 처음으로 지역별 공의의 업무 중에 하나로 학교 내에서 보건위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것이 조선의 학교위생교육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학교위생교육과 체육교육 성향

조선총독부는 1922년 2차 교육령을 공포하고 대학을 포함한 학제의 체계화를 일본 내지의 학교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침(文部省教育史編纂會 c, 1939: 505)을 발표하면서 위생계몽 내용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위생논조와 관련된 연구내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의학박사로 활동했던 후타기 켄미츠(二木謙三)는 「진정한 건강법에 관하여(眞の健康法に就て)」란 제목의 강의에서 서구에서 발달한 생리학을 기본으로 영양섭취방법과 위생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간은 원래 건강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병원균은 자신의 잘못된 일상생활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건강법을 추구해 성취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 스스로가 신체를 해쳐서 자신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오늘날 일본은 모든 것이 식량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 신체의 자연 저항력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소의 필요와 불필요, 흰 쌀밥만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잡곡과 보리, 밤, 두부 등이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소에 물이 없으면 불완전하다. 또 하나 이러한 잡곡을 잘 씹어서 먹고 매일 여러 가지 체조를 병행하는 것이 근력을 향상시키고 비만과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二木謙三, 1925: 12-23).

이어서 와다히키 아사미츠(綿引朝光)는 「위생학의 진보(衛生学の進歩)」란 글에서 인체가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나 경로의 탐색, 그것을 예방하는 근대 위생학의 발전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한다.

위생학이란 인류의 일상적 환경을 연구하여 생활기능을 교란하거나 생활수준을 낮추는 원인을 방어, 구제하는 몸 의학의 한 분과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의 사회위생(Soziale Hygiene)와 영국의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미국의 공중위생(Public Health)이라는 3대 목소리가 현대 위생학에 부과된 책무였으며, 그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환언하면 위생학이란 전염병의 근원을 깊이 연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화학, 물리, 공학 등의 모든 분야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인 의·식·주·공기·토지 등의 상황에 상응하여 그 적절한 처치에 의해 보건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 이에 우리가 실행할 매우 많은 것 중에서 특히 극동에서 결핵의 만연과 티푸스의 유행, 유아사망률 증가 등은 커다란 문제이다. 하물며 조선에서는 오늘날의 사회 상태를 참작하여 위생학 연구에 큰 노력을 요한다(綿引朝光, 1926: 45-46).

후타기는 “일본인 사망률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음식물 섭취와 밀접하게 관련된 위와 장이 건강”해야 하며, 이것은 곧 “결핵을 예방”하는데 도

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의 호라스 플레처(Horace Fletcher)²¹⁾와 덴마크의 영양학자인 힌드헤데나가 제시한 채식과 소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예로 들어 “음식물 섭취는 육식보다 채소와 소식이 좋고 잘 씹어야 하고, 쌀밥과 고기보다는 잡곡이나 감자 등이 영양에 좋다.” 그리고 “동양인은 쌀을 정백(精白)해서 먹는 습관 때문에 수확량이 적어 쌀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오늘날의 식량부족문제²²⁾를 해결할 방법으로 정백하지 않고 먹어야 건강에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습관을 바꾸어야 하고, 국가를 위해 국민이 건강해야 하며, 10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二木謙三, 1925: 15-22)는 당시 서구의 영양학적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와타히키(綿引朝光)는 “독일의 페텐코퍼와 코흐, 프랑스의 파스텔 등의 서구위생이론”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세계열강들이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사상 고취에 전념하는 현실에 비추어 아직도 조선사회에는 전염병 등 질병이 만연하기 때문에 위생학 연구에 많이 노력해야 한다”(綿引朝光, 1926: 46)는 지식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내과의사였던 무카이 토루요시(向井虎吉)는 「보통학교 아동의 체격상에 관해(普通學校兒童の体格相に就て)」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의 체형상 교정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이를 교정하여 완전한 발육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생교육이자 체육이라 제시하고 ① 흥부가 편평한 자가 많고 복부

21) Horace Fletcher(1849-1919년)는 미국의 실업가이자 대부호였다. 한 때는 운동선수였고 돈이 많았지만, 체중이 100kg을 넘는 비만상태로 마흔 살이 지나자 늘 어깨와 머리가 아프고, 복부팽만감, 변비, 설사, 정신적 불안감 등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병, 간장병 등을 앓고 있었다.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진전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듣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한 번에 50번 이상 씹는 것을 기본으로 음식을 씹어 먹자 모든 병이 좋아졌고, 체중도 줄어 기억력과 사고력도 좋아졌다. 이를 계기로 그는 의사들 모임에서 연설하였다. 여기에 의문을 품은 학자들과 체조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역량과 건강에 대해 시범을 보여 증명하였다. 이것을 Fletcherism이라 부르며, 구미에서는 건강법의 하나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플레처리즘이란 식사법에 관한 주의, 생각을 말한다. 감식주의(減食主義)라고도 한다. 플레처의 건강보존법으로 공복 때만 식사를 하고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먹을 것을 제한한 식사법이다(이태신, 2000: 1121).

22) 1918년 일본에서 쌀값 폭등 원인으로 일어난 전국적 폭동을 말한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쌀 부족문제를 조선과 대만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20년부터 산미증산운동이 시작되었다.

가 비교적 비대하다. ② 흉부의 비정상적 발달 아동이 비교적 많다. ③ 비뚤어진 가슴의 아동이 많다. ④ 흉골이 침하된 아동이 많다. ⑤ 호흡이 조금 미약하다. ⑥ 팔의 힘이 조금 약하다. ⑦ 지근(肢筋)과 가슴, 어깨의 발육이 충분하지 못하다. ⑧ 회전운동에 대한 능력이 떨어진다. ⑨ 몸통의 여러 근육이 균형적이지 못하다. ⑩ 운동 조정력이 부족한 아동이 있다. ⑪ 피부가 청결하지 못한 아동이 많다”(向井虎吉, 1928: 141-149)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도 발육이 왕성해지는 아동들이 6년간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안 동일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졸업할 때에는 체격이나 체력에서 일본에 있는 아동들과 별 차이가 없다. 위생적 신체를 달성하기 위해 체육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급속한 진보를 이루어 완전한 체격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向井虎吉, 1928: 150)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황성휘는 근대 위생학 지식을 근거로 삼아 “조선의 풍습에서 조망한 신체발육의 결함과 원인으로 ① 기후풍토, ② 의복, ③ 음식, ④ 주거, ⑤ 위생, ⑥ 미신”을 제시하였다(黃性微, 1929: 79-83). 이어서 그는 “학생들의 청결한 학교위생환경을 기본으로 완전한 인간을 조성하고, 필요한 심신을 발달시키는데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 특히 위생에서 지켜지지 않는 점으로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아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음료수를 잘못 먹어 십이지장충·회충·디스토마 등의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고, 폭음과 과식하는 사람이 많으며, 일상생활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심신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연코 개선해 가도록 주의해야 한다”(黃性微, 1929: 84)는 지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설들은 위생시설이 미비한 조선의 학교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의 기후 및 의식주를 포함한 사회적 풍속을 포함하여 근대적 생활습속을 떨쳐버리지 못한 조선인 아동들²³⁾을 대상으로 연령과 체력, 체질과 질병에 알맞은 운

23) 식민지 조선에 대한 위생관념은 조선총독부는 물론이고 위생관련 책자나 계몽잡지, 신문 등, 1920년대에도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 조선총독부 警察官講習所の『警察教科書』, 『朝

동을 실시해야 완전한 위생적 신체를 조성할 수 있고, 이것이 곧 근대적 건강 생활을 몸에 익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계몽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관립학교 의사였던 오츠키 이치야(大槻弑也, 1930)는 「학교위생(學校衛生)」에서 “신체의 적당한 운동은 보건상 필수항목이며, 심신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생 요인이다”(大槻弑也, 1930: 35; 조형근, 1997: 194). 이어서 학교위생의 필요성과 의의 및 범위로 “위생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설비와 교수방법, 운동과 위생, 신체 허약자와 정시 허약자의 취급, 교사 및 학교의 또는 학교간호부, 신체검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로 나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극적 위생활동에 그치지 말고 항상 적극적 위생활동과 더불어 정신발달과 강건한 체력을 향상시켜 심신이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자. 이를 달성하려면 학교의와 교직원, 가정과의 친밀한 연락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大槻弑也, 1930: 28)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해 오츠키(大槻)는 “해부학 및 생리학에 근거”하여 “학교위생을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발육, 발달을 통해 미래 사회의 강건한 국민을 조성하도록 “위생과 체육”을 상호보완적으로 “교육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때의 주의사항으로 “운동의 효과와 폐해, 운동과 연령, 운동의 적합 판정, 운동실시상의 주의 등을 숙지하고, 학령 전과 6-9세, 10-14세, 15-19세, 20-30세, 30-40세, 40세-50세로 세분하여 그 연령에 맞는 운동종류와 강도를 실행해야 한다.” 운동 실시상 주의할 점으로는 “체질과 질병에 따라 적당한 운동과 분량을 정해 실시하고, 음식, 연습과 휴양, 일반적 위생문제를 경시하면 안 된다. 공기나 음식물, 주거,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운동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서로 보완하여 여러 곳에서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체가 원만하게 발육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범죄자가 많이 나온다고 여러 전문가가 이구

鮮の教育研究』 등에 실린 많은 글에서 조선인은 병에 걸리면 우선 무녀나 점쟁이를 찾아가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글들이 많이 눈에 띈다(鈴木公重, 1924: 4; 朝鮮總督部警察官講習所, 1926: 33; 黃性徽, 1929: 77; 松本武祝, 2007: 6).

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통계도 있다”(大概式也, 1930: 29-30)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연령에 걸 맞는 운동의 강도, 분량, 체질 및 질병의 유무 등 개인적인 위생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체조를 포함한 신체운동을 계속해야 하지만, 신체 이상자에게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특히 강조하는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이 외에도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에는 「콜레라 박멸은 동양 전체의 공동 작업에 의해(コレラのば撲滅は東洋全体の共同作業によりて)」(志賀潔, 1926: 198-200), 「하계 위생의 중대 문제(夏期衛生の重大問題)」(志賀潔, 1927: 9-10), 「학교위생과 풍기 문제(學校衛生と風紀問題)」(長根禪提, 1929: 152-158), 「육식과 채식에 관하여(肉食と菜食に就いて)」(本田健義, 1930: 79-83)등의 다수의 논설이 게재되었다.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에는 「자연에 친숙하고 자연에 저항하지 않는 위생요제(自然に親み自然に抵抗するが衛生の要諦)」(工藤武城, 1926: 20-21), 「갓난아기의 발육과 그 체육(赤ん坊の発育と其の体育)」(向井虎吉, 1930: 21-25), 「아동의 구강 위생(兒童の口腔衛生)」(森哲朗, 1930: 77-81), 「아동의 앉은 자세와 책상 및 걸상에 관하여(兒童椅坐姿勢と机及腰掛に就いて)」(羅智綱, 1930: 81-90), 「신체검사와 그 이용법(身体検査と其の利用法)」(李基綾, 1930: 91-104), 「체력검사법에 관하여(体力検査法に就いて)」(梅澤慶三郎, 1930: 52-55), 「학교보건: 아동의 정신건강과 학교생활(學校保健: 兒童の精神健康と學校生活)」(市村秀志, 1931: 18-24)등의 글들이 많이 보인다.

위 글들의 주된 논조는 아동·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 사회인에 대해서도 “콜레라 예방은 모든 동양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박멸해야 하며”, “육식과 채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피력한다던지, “여름철 위생에서 야채를 많이 먹는 조선인의 식습관이 회충이나 기생충을 배양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일”, “구강위생 및 발육”, “의자에 앉는 자세와 책걸상”과의 관계, “신체검사를 체육교육에 이용하는 방법”, “체력검사법에 대한 소견”, “학교보건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 등 근대적 의료·의학의 성과를 토대로 학교위생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로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의 침략이 가까워질수록 “아동 · 학생들의 학교위생과 신체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와 관련된 정책적 취지는 물론이고 군국주의가 다시금 표출되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가 위생교육 논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일제가 식민초기부터 만주사변 발발 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한 근대적 학교위생교육 계몽활동을 규명하였다. 이를 둘러싸고 총독부의 관련단체로 활동한 교육연구회가 발행한 교육잡지에 실린 위생계몽 논설과 그 논조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기에 발행된 『조선교육연구회잡지(朝鮮教育研究會雜誌)』, 『조선교육(朝鮮教育)』,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조선의 교육연구(朝鮮の教育研究)』에 실린 논설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제가 실행한 근대서구의 위생학 계몽활동이 전체 조선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측면이 남아 있다. 이 시기 교육단체가 발행한 교육잡지 내용들이 총독부의 정책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선전에 치중하였고, 또 이것이 학교교원들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읽혀졌기 때문에 교육자의 교육방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나 위생학의 계몽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독부의 법령 제정과 관련하여 이 법들이 실제로 식민지 조선인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으며, 그 과정에 대한 면밀한 추적도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 결과 근대일본은 개항 후부터 국민위생의 중요성을 간파하였는데, 이

는 어려서부터의 철저한 교육 속에 국민의 발육과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진입을 위해 필요한 미래 일꾼을 양성하는데 학교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소학교부터 학생들의 위생사상을 근대적으로 고취하도록 교육제도를 정립하여 실시하였다. 더욱이 서구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학교보건상 ‘완전한 위생’을 달성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체육(체조)교육’을 철저히 실시한 결과, 일제는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근대위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후 일제는 조선을 병탄하면서 총독부를 비롯한 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식민지 조선인의 위생은 매우 미개하여 무당과 같은 미신에 기대는 비과학적 풍습이 만연해 있다. 또 구조선의 의료체계는 국민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식민지배를 정당화시켰다. 당시 일제의 위생인식은 그들 주변의 조선인 지식층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있었다. 특히 식민지 조선인을 근대위생적으로 개화시키는 일은 재조선 일본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위생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대변할 교육단체를 조직하여 그들이 발행하는 교육잡지에 위생 논설이나 글을 많이 게재하여 조선인의 위생을 근대적으로 바꾸려고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였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총독부는 1913년에 처음으로 자국의 학교 위생법과 동일한 훈령을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관립학교에 공포함으로써 조선에서 공의 및 학교의나 간호부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17년에는 총독부 학무국에 학교위생 사무를 담당하는 촉탁을 두는 등 학교위생 교육이 일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관리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는 근대학교체제 속에서 위생 및 보건과 관련된 제도가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교육잡지에 실린 학교위생교육의 논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즉 전쟁이라는 시국적 위시상황에 미

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완전한 신체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대의학의 해부, 생리학적 논리를 토대로 학교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완전한 위생을 달성하기 위해 보완적 요소로 대두된 서구식 체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구적 의학을 토대로 제국주의 국가에 필요한 완전한 위생을 달성하려면 학교위생 교육에서 학생의 발육발달과 체력향상 등에 빼놓을 수 없는 체조를 더욱 강화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듯하다. 여기에는 일제가 세계적인 군국주의 정세에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강건한 국민을 육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을 읽어낼 수 있다.

1919년 3·1독립운동 후 식민지 조선인을 동화시킬 정책으로 “내지연장주의”를 내걸고, 1919년 4월에 일련의 학교위생 관련법을 개정하여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훈령을 시행하였지만,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학교위생 관련법 시행에는 지배민족과의 차별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인의 보통학교에는 학교의나 간호부를 고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학생신체검사도 매우 형식적인 연중행사에 그쳤다. 이러한 차별적 학교위생에 대해 조선인 교육자들도 불만을 표출하는 등, 당시 조선총독부의 학교위생 제도는 조선인 학교에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차별적 정책이었다.

일제는 1920년대 지역 위생사무 촉탁을 신설하거나 여성교원의 산전·산후 휴양, 학교 간호부 설치 등 학교위생에 필요한 여러 정책을 전개하였다. 교육잡지에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당대의 국제적 의학 성과와 위생논리를 강조하며, 조선사회에서 근대 위생학이 발전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플레처리즘”을 제시하며, 사회적 썩 과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위생과 연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근대적 완전한 위생 차원에서 학생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서 나타난 신체 불균형 학생이나 체형상 교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당한 체조를 제공해 교정, 발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완전한 위생방법으로 계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구의 채식주의를 예

로 들어 야채와 날 것을 많이 먹는 조선인의 식습관이 회충이나 기생충을 불러오며, 인분을 그대로 토양에 뿌리는 풍속 때문에 환경이 더럽혀지고 전염병이 만연하므로 이를 예방하는 일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비논리적 내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적 위생지식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교육계몽 논설이나 논조는 총독부 관료의 정책을 대변하거나 시국에 맞는 교육방법의 제시, 사회 고위층들이 파악하는 근대위생학 논리의 정착 등에 대한 조선인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설 경향에는 일제가 해당 시기 학교교육 속에서 추진한 위생교육의 주체로 식민 지배자인 재조선 일본인 학생들에게 생활편익과 청결한 위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선 그들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특히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듯 국제정세에 빠르게 대처하려는 군국주의적 의도에 따라 “신체가 원만하게 발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범죄가 많다”는 모순적 논리마저 내세워 완전한 근대적 위생을 달성하려면 신체발육,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체육교육도 매우 중요한 위생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학교에서 아동·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 주입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식민초기부터 중기까지 일제의 근대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학교 위생교육의 초기적 성과나 법령 제정과 제도의 추진과정, 학교교육 속의 위생학과 체육교육의 관계 등에 대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어, 그 이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해석적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색인어 : 식민초기 조선인, 교육잡지 논설, 학교위생교육, 학교의(醫)제도, 체육(체조)교육, 관립학교

투고일 2013. 7. 1 심사일 2013. 7. 11 게재확정일 2013. 12. 9

참고문헌

〈자료〉

○ 新聞

『獨立新聞』, 1896년 5월 2일.

『每日申報』, 1914년 8월 19일.

『朝鮮新聞』, 1914년 10월 1일.

○ 『朝鮮教育研究会雜誌』

各地方委員, 「朝鮮各道に於ける体操術奨励及実施狀況」, 『朝鮮教育研究会雜誌』 36, 朝鮮教育會, 1918.

弓削幸太郎, 「所謂紳士の体操に就いて」, 『朝鮮教育研究会雜誌』 32, 朝鮮教育會, 1918.

金志淵, 「改良すべき朝鮮の風俗」,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1, 朝鮮教育會, 1919.

內藤萬太郎, 「單級に於ける体操教授について」,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5, 朝鮮教育會, 1919.

馬場豊二, 「体育奨励法」, 『朝鮮教育研究会雜誌』 25, 朝鮮教育會, 1917.

北豊吉, 「夏期休暇中の体育的施設に関する意見」, 『朝鮮教育研究会雜誌』 33, 朝鮮教育會, 1918.

白浜寿夫, 「学校体育之消極的方面」, 『朝鮮教育研究会雜誌』 50, 朝鮮教育會, 1919.

白河武夫, 「小学校体育不振の理由と所感」,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9, 朝鮮教育會, 1919.

濱田熟, 「体操科に於ける要領徹底方案」, 『朝鮮教育研究会雜誌』 38, 朝鮮教育會, 1918.

寺尾兵右衛門, 「国民体育問題に対する余の態度」,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0, 朝鮮教育會, 1919.

上杉敏夫, 「学校体育の欠陥と救済策と」,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6, 朝鮮教育會, 1919.

徐光勳, 「学校生徒身体検査に就て」,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4, 朝鮮教育會, 1919.

小島与一, 「体操科に於ける教師の見識」,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4, 朝鮮教育會, 1919.

小島興一, 「木劍長刀体操講習會出席復命書」, 『朝鮮教育研究会雜誌』 27, 朝鮮教育會, 1917.

錦江, 「体育は徹底的にたるべし」,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6, 朝鮮教育會, 1919.

田中徳次郎, 「学校衛生の二三に就て」, 『朝鮮教育研究会雜誌』 6, 朝鮮教育會, 1916.

佐伯直治, 「現時の学校体育に対する疑問」, 『朝鮮教育研究会雜誌』 41, 朝鮮教育會, 1919.

中山貞夫, 「我校の体育」, 『朝鮮教育研究会雜誌』 51, 朝鮮教育會, 1919.

○ 『朝鮮教育』

志賀潔, 「主として内地人兒童の保健に就て」, 『朝鮮教育』 7-6, 朝鮮教育會, 1922.

○ 『文教の朝鮮』

工藤武城, 「自然に親み自然に抵抗するが衛生の要諦」, 『文教の朝鮮』 12, 1926.

本田健義, 「肉食と菜食に就いて」, 『文教の朝鮮』 55, 1930.

綿引朝光, 「衛生学の進歩」, 『文教の朝鮮』 10, 朝鮮教育會, 1926.

二木謙三, 「眞の健康法に就て」, 『文教の朝鮮』 3, 朝鮮教育會, 1925.

長根禪提, 「学校衛生と風紀問題」, 『文教の朝鮮』 51, 1929.

志賀潔, 「コレラの撲滅は東洋全体の共同作業によりて」, 『文教の朝鮮』 14, 1926.

志賀潔, 「夏期衛生の重大問題」, 『文教の朝鮮』 23, 1927.

○ 『朝鮮の教育研究』

羅智綱, 「兒童椅坐姿勢と机及腰掛に就いて」, 『朝鮮の教育研究』, 2-1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大槻戈也, 「学校衛生」, 『朝鮮の教育研究』, 2-1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梅澤慶三郎, 「体力検査法に就いて」, 『朝鮮の教育研究』, 3-8,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森哲朗, 「兒童の口腔衛生」, 『朝鮮の教育研究』, 2-1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市村秀志, 「学校保健: 兒童の精神健康と学校生活」, 『朝鮮の教育研究』, 4-7,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1.

李基綏, 「身体検査と其の利用法」, 『朝鮮の教育研究』, 2-1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李基綏, 「體育の環境施設」, 『朝鮮の教育研究』, 4-6,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1.

赤木萬二郎, 「『朝鮮の教育研究』發刊に際して」, 『朝鮮の教育研究』 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28.

黃性徽, 「体操科を如何にして郷土化するべきか」, 『朝鮮の教育研究』 5,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29.

向井虎吉, 「普通学校兒童の体格相に就て」, 『朝鮮の教育研究』 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28.

向井虎吉, 「赤ん坊の發育と其の体育」, 『朝鮮の教育研究』, 2-11, 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0.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朝鮮の人口現象』, 1927.

朝鮮總督府官報, 1913年4月26日.

朝鮮總督府救療機關, 1912.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4.

○ 日本

內閣官報局, 『官報』, 第千三百九十三号, 明治31年2月26日.

〈연구논저〉

- 권태억, 『1920 · 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Ⅲ』(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김동노, 『식민지시기 일상생활의 근대성과 식민지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국학총서 36: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서울: 혜안, 2004).
- 김동노,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지배의 독특성』, 김동노 편, 『연세국학총서 72: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형성』(서울: 혜안, 2007).
-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서울: 문학과지성사, 2009).
- 김성학, 『일제시대 관변교육단체의 형성과정과 그 사회적 기능』, 『교육학연구』 41-2, 2003.
- 김승태, 『일제의 식민지배와 식민통치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38: 근대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국민통합』(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김진균 · 정근식 · 강이수, 『한국에서의 ‘근대적 주체’의 형성: 식민지체제와 학교규율』, 『경제와 사회』 32, 1996.
- 박윤재, 『韓末, 日帝 初 近代的 醫學體系의 形成과 植民 支配』,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윤재, 『양생에서 위생으로』, 『사회와 역사』 67, 2003.
- 박윤재, 『한국근대의학의 기원』(서울: 혜안, 2005).
-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의사학』 19-1, 2010.
- 손준중, 『근대일본에서 학생 몸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 『비교교육연구』 14-3, 2004.
- 신기욱 · 마이클 로빈슨 편, 『식민지 시기 한국을 다시 생각하며』, 도면회 역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서울: 삼인, 2006).
- 유근직, 『일제 식민지시대의 체육이 광복 후 한국 학교체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0-2, 2001.
- 유근직, 『식민지 체조교육과 한국인의 신체형성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38-2, 1999.
- 의료연구회 편, 『한국의 의료: 보건의료의 정치경제학』(서울: 한울, 1989).
- 이승원, 『근대적 신체의 발견과 위생의 정치학』, 이승원 · 오선민 · 정여울 공저, 『국민국가 의 정치적 상상력』(서울: 소명출판, 2003).

- 이영아, 『육체의 탄생』(서울: 민음사, 2008).
- 이종찬, 「20세기 우리나라 보건정책과 제도: 사회사적 이해」, 『의사학』 18-2, 1999.
- 이종찬,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이태신 편저, 『체육학대사전』(서울: 민중서관, 2000).
- 정준영, 「구한말 체육사상의 변화: 위생체육에서 상무체육으로」, 김경일 외 16명, 『한국사회사상사 연구』(서울: 나남출판사, 2003).
- 정혜경 · 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 구현된 위생정책」, 수요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서울: 두리미디어, 2005).
- 조형근, 「근대 의료 속의 몸과 규율」, 사회과학연구소 편,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서울: 새길, 1997a).
- 조형근, 「식민지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김진균 · 정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서울: 문화과학사, 1997b).
- 최혜주 편저, 『『文敎の朝鮮』總目次 · 人名索引』(서울: 어문학사, 2011).
- 古瀬安俊, 『学校衛生』(東京: 南山堂書塾, 1919).
- 見市雅俊, 『コレラの世界史』(東京: 晶文社, 1994).
- 大江志乃夫, 『徴兵制』(東京: 岩波親書, 1981).
- 大日本學校衛生協會, 『日本學校衛生』(東京: 大日本學校衛生協會, 1921).
- 藤野豊, 『厚生省の誕生』(東京: かもがわ出版, 2003).
- 藤井利誉, 『学校管理法-女子師範教科-』(東京: 日黒書店, 1910).
- 木下秀明, 『兵式体操からみた軍と教育』(東京: 杏林書院, 1982).
- 文部省教育史編纂会, 『明治以降教育制度発達史』, 第3卷(東京: 龍吟社, 1939a).
- 文部省教育史編纂会, 『明治以降教育制度発達史』, 第4卷(東京: 龍吟社, 1939b).
- 文部省教育史編纂会, 『明治以降教育制度発達史』, 第10卷(東京: 龍吟社, 1939c).
-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京城: 日韓印刷社, 1918).
- 三島通良, 『学校衛生学』, (東京: 波蘭堂, 1893).
- 三島通良, 「体育法と体操と」, 『内外名家体育論集』(東京: 日本体育会, 1902).
- 西尾達生, 『日本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学校体育政策』(東京: 明石書店, 2003).
- 小野雅章, 「国民精神総動員運動の始動と教育」, 『研究紀要』 48, 1994.
- 松本武祝, 「植民地朝鮮における衛生医療制度の改編と朝鮮人社会の反応」, 『歴史学研究』 834, 2007.
- 矢内原忠雄, 『新渡戸稲造博士植民地政策講義及論文集』, (東京: 岩波書店, 1943).
- 辛圭煥, 「20世紀前半京城と北京における衛生医療制度の形成と衛生統計」, 『歴史学研究』 834, 2007.

HWANG Eui-Ryong · KIM Tae-Young : The Study of School Hygiene and Physical Education in Chosun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Carried Out through Educational Magazines

歴史教育者協議会,『学校史でまなぶ日本近現代史』, (東京: 地歴社, 2007).

鈴木公重,『朝鮮と医業』(東京: 光文堂, 1924).

鈴木三伯,「体育運動に就て」,『青森県学校衛生』(青森: 青森県学校衛生会, 1924).

日本衛生協会,『衛生実務提要』(東京: 日本衛生協会, 1910).

田波幸男,『公衆衛生の発達-大日本私立衛生会雑誌抄-』(東京: 日本公衆衛生協会, 1967).

朝鮮總督府學務局,『朝鮮教育要覧』, (京城: 朝鮮總督府學務局編, 1926).

朝鮮總督部警察官講習所,『警察教科書』(京城: 朝鮮總督部警察官講習所, 1926).

清水勝嘉,『続・公衆衛生の発達』(東京: 公衆衛生協会, 1983).

平井次郎,『学校衛生書』(東京: 金港堂, 1899).

脇村孝平,「植民地統治と公衆衛生」,『思想』878, 1997.

Seaman, Louis Livingston, *The Real Triumph of Japan*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06).

-Abstract-

The Study of School Hygiene and Physical Education in Chosun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Carried Out through Educational Magazines: Focusing on the Time Period before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10-1931*

HWANG Eui-Ryong** · KIM Tae-Young**

** College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KOREA

This research mainly dealt with sanitation and hygiene related editorials quoted from educational magazines published in Chosun until the Manchurian Incid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tudy revealed that modern Japan became aware of the importance of public sanitation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established modern programs so that schools can comprehensively teach students about sanitation and hygiene so as to enter modern imperial society.

Japan particularly introduced and carried out modern physical (gymnastics) education as a means of “complete sanitation and hygiene” to improve students’ health. As a result of having two times of war, the Japanes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13.

** Corresponding Author: KIM Tae-Young / College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ddres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130-791, KOREA

E-mail: ktyoung66@hanmail.net

Received: Jul. 01, 2013; Reviewed: Jul. 11, 2013; Accepted: Dec. 09, 2013

Empire reaffirmed the significance of modern sanitation and hygiene. After colonization of Chosun, Japan organized official educational groups and enlightened the public about sanitation and hygiene through editorials on the educational magazines which the groups had published. In order for schools to promote complete sanitation and hygiene based on modern medicine, Japan actively engaged in suggesting the necessity of physical(gymnastics) education which was critical to human's growth and development. After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legislated on school hygiene in 1913, Japanese governments school started hiring school doctors and nurses.

They stressed the need of providing sanitation and hygiene education in school to prepare for war in 1910's in advance; highlighted that physical (gymnastics) education should be enforced to help students grow and improve their physical strength from a modern medical point of view. In April, 1919, the Japanese Empire implemented the same instruction to the schools where Chosun people attended. But it was found that the law was not applied well to those schools in effect.

The Japanese Empire was seen to proclaim the second educational decree in 1922; proposed international hygienic achievement of the time and comments; enlightened the public by connecting "Fletcherism" of the USA with rice crisis, which was a big social issue back then. In an attempt to complement modern sanitation and hygiene, Japan strongly recommended students appropriate physical gymnastics as the most desirable and complete sanitation method, saying it would help them correct their imbalanced condition-which was found from physical examination - and grow up.

They even claimed such an absurd logic that ones whose body did not develop normally tend to become criminals, reflecting the then atmosphere of the society, and considered military gymnastic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anitation and hygiene fac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 growth and development. All the fact that Japan tried hard to apply the practice to

students cannot be ignored.

Keywords : Chosun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editorials on the educational magazines, school hygiene, school doctors and nurses, physical(gymnastics) education, governments school

